

성화 VIII :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은 에베소서 4:22-24 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 하늘에 속한 삶의 시작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먼지를 뒤집어 씌우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티끌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다가 턱걸이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옛사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같은 죄를 자주 반복하여 짓게 하는 놈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예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으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새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에서의 해방-옛사람에게서의 해방을 원하는 사람은 옛사람을 알고 옛사람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 없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용서를 받은 것을 확실히 믿지만 그 죄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먼저 관계되는 성경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요한일서 1 :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죄로 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용서와 깨끗함을 구별합니다.

죄의 자백으로 죄용서는 받지만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자백과 용서로 죄책에서 면제되었지만, 오염의 결과인 옛사람으로 부터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옛사람에서 깨끗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신앙 생활은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죄용서는 받았는데 더 깊은 은혜에 들어 가지 못하고 왜 자꾸 죄를 반복합니까? 왜 영적으로 계속 갈급함을 느낍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밥먹듯, 죄를 물마시듯 마시고 살던 옛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한 후에도 이 옛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보려는 것을 방해하고 예습관, 옛생각, 옛기호로, 옛 Life style 로 살도록 잡아 끄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별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고 나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옛사람의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옛사람의 문제가 기독교인 한 사람이 신앙 생활 가운데 느끼는 문제인 것 같지만, 모든 종교에서 제기되는 공통적 이슈라는 것을 짚고 건너 가십시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이 문제는 다른 용어로서 close up 됩니다.

종교는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 악을 최대한 억제하라. 악은 옛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학에서는 궁극적 선과 악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네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 가는 것이 절대선이다. 철학은 옛사람이고 새사람이고 구별할 것 없이 네 자신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라.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른 이름으로 같은 문제를 제시하지만 그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기독교의 길이 제일 어려워 보입니다. 왜 기독교의 길이 제일 어려워 보입니까?

기독교이외의 종교나 철학의 길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길이지만 기독교적인 해법은 이성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옛사람에서 해방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도 받아 들일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길이라 하며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해방의 길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하는 성경이 선언하는 그 길을 믿고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네 안에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었으니, 너 그것을 없애 보려고네 자신의 노력으로 고행, 절제, 수행 같은 것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죽은 것으로 여겨줄 뿐 아니라 너의 예사람은죽었다!

아니 아직도 옛사람이 죄를 밥먹듯 짓고 있는데 그것을 죽은 것으로 믿으라니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길이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박으시면서, 그가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책으로서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셨을 뿐 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우리들 자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니 죄책에서 면제되고, 오염에서 해방 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책에서 면제되고 오염에서 해방된 된 자들입니다.

누구의 덕택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노력으로, 옛사람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노력으로란 말에 attention 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으로 계속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면 안됩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옛사람을 억제하려고 하지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고행과 절제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옛사람 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으로 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새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옛사람의 밧줄은 썩은 새끼줄처럼 풀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옛사람으로 살라고 해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해법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고행이나 절제가 필요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새사람으로 충만해져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 죽은 삶입니다.

2..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기나?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 육을 통하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육은 죄가 인간에게 만들어 놓 교두보 즉 다리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넘어와 권세를 행사하는데 육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 건너 옵니다. 죄는 육을 통해 건너와 각 사람 안에서 옛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지배를 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는 각 사람을 마귀로 만들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그 옛사람을 통해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뒷집지고 가만히있어도 사람은 옛사람 때문에 죄를 저절로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사람을 죄를 짓도록 밀어 부친다거나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만들어 놓고 옛사람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혼자 알아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죄의 지배에서 벗어 나게 하기 위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시질 않고,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새사람으로 살게 하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밖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을 죽게 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밖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었으니 죄는 아무리 밖에서 이빨을 갈고 있어도 신자가 새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못하거나 이런 진리를 모른다고 해보십시오.

마귀는 아무리 중생한 신자라도 우습게 보고 계속 권세를 행사하며 괴롭히고 못살게 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옛사람은 죽지 않았고, 죽었다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지배권이 박탈되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배권이 박탈되었는데, 죽지 않았으면 지배권도 박탈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지배권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꾸 자꾸 같은 죄를 짓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에 절대로 죽은 것 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나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한두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렇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능력이 임하고 이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이 생음약처럼 라이브로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만약 안죽었다 안죽었다 그래 보십시오.

마귀는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도달하는 진리요,

육에서의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된다!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사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사람이 죽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생명 가운데 새사람으로 삽니다.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3. 새사람으로 산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흥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새사람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또 기독교인이 윤리적 삶을 산다는 것보다 훨씬 그의미가 깊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고 난후 천당에 가서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 때 부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니 부활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새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부활에 대해 막연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언제인가 죽고나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도 맞지만 더 깊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몸의 부활은 재림시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나의 옛사람이 산다는 것이 아니다. 새사람의 주체로서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산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깨는 모든 것을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 예전에는 죄가 옛사람을 통하여 나를
주관하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 갑니까?

갈라디아서 5 :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 가는 것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